

### 한전, 네팔 지진 피해 성금 1억 전달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9일 주한 네팔대사관을 방문해 임직원이 모금한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한전 제공)

### 광주 광덕고 네팔 지진 피해 성금 534만원



광주 광덕고등학교(교장 김갑수)는 지난 20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에 네팔 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534만7100원을 전달했다.

(광덕고 제공)

### 광주 북구 '지자체 일자리 대상' 장관상



광주 북구(구청장 송광운)는 21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1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과 상사업비 9천만원을 획득했다.

(광주 북구청 제공)

### 박수용 경비협 광주전남북협회장 유권자 대상



한국경비협회 광주전남북지방협회 박수용 회장이 유권자 시민행동(상임대표 오호석)추천으로 국회현경기념관에서 최근 열린 유권자 대상 감사장을 수상했다.

(한국경비협회 광주전남북지방협회 제공)

# 조선대병원, 캄보디아 청소년에 새 생명

## 박형동 시비 장성에 제막

### 박일균 장성유통대표 쾌척

### 심장질환자 등 3명 초청 수술

#### 사진전·나눔행사로 비용 마련

#### “국내외 봉사활동 계속 펼칠 것”

“조선대병원 의료봉사단이 캄보디아에 왔을 때 수술을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수술에 필요한 장비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받고 건강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 행복해요.”

최근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건강을 회복한 리후어(8) 군은 고향 캄보디아로 돌아가기에 앞서 조선대병원 의료진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 이상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는 조선대병원 해외의료봉사단을 만나며 희망을 얻게 됐다.

지난 2월 3일부터 8일까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를 운영하던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장비가 없어 수술하지 못한 리후어, 스마이(9), 워따이(여·19) 양까지 환자 3명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지난 4월 22일 광주에 온 이들은 24일부터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조선대병원 직원들은 캄보디아에서 온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진전과 나눔행사를 열어 수술비 등을 직접 마련했다.



조선대병원 초청으로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스마이, 리후어, 워따이(왼쪽부터)양이 문경래 병원장(맨 왼쪽)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경래 병원장은 “환자분들의 응원과 후원 덕분에 캄보디아로 떠났다. 건강을 되찾은 리후어 군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돼 수술 없이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며 “회복되어 뛰어다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초창하여 수술에 주신 조선대병원 의료진과 교직원 모두의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일 자정께 캄보디아에 도착한 이들은 마중 나온 가족 앞에 건강한 얼굴로 섰다. 한국에 다녀온 후 표정도 밝아지고 통통하게 불살이 오를 리후어를 보며 가족들은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고 조선대병원 현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제 따라 조선대병원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제 따라 조선대병원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제 따라 조선대병원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윤장현·이승규·김재국 '자랑스런 살레시안상'

(광주시장) (정우21C대표) (전남대 교수)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승규 정우21C대표, 김재국 전남대 공과대 교수 등 3명이 '2015 자랑스런 살레시안상'을 받았다.

살레시오중·고교 총동문회는 21일 “최근 동문회 이사회를 열고 2015 자랑스런 살레시안상 수상자로 윤장현 광주시장(고 6회)과 이승규 정우21C대표(고 18회), 김재국 전남대 교수(고 24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랑스런 살레시안상은 살레시오중·고 총동문회가 매년 살레시오중·고를 빛낸 동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35번째다.

윤 시장은 민선 6기 시민시장에 당선돼 살레시안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공동체라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공로가 인정됐다.

이 대표는 내전으로 기근과 공핍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에 성금 1억 원을 내 살레시안의 정신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차세대 전국물질로 평가받고 있는 바나눔계 양극 물질을 독특한 입자형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 신소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모교를 빛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살레시안상은 24일 모교에서 열리는 제35차



윤장현 시장 이승규 대표 김재국 교수

살레시안 붓들의 큰 모임 행사 때 수여된다. 정환재 살레시오중고 총동문회장은 “3만여 졸업생들이 전국과 세계에서 살레시안 정신을 발휘하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모교의 발전과 긍지를 드높인 동문 가운데 살레시안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김응록 철도학회 호남지부장 목포 덕인중서 철도과학교육

김응록 한국철도학회 호남지부장(송원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21일 목포 덕인중학교에서 '철도과학의 비밀'을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철도학회(회장 홍용기·우송대 교수)가 철도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5년 춘계학술대회'(21~23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의 부대 행사로 마련됐다.

김 교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자문위원, 광주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 위원, 한국공학교육인증평가위원을 맡고 있다.



## 생활 게시판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 화측

▲박인주(정읍보호관찰소장)·신수덕씨 장남 병규군(여수 LG화학) 정경성(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서영숙씨 차녀 고은(광주문정여고)양=23일(토) 오전 11시 50분 광주파라스타 4층 디아망홀  
▲박준일(광주CBS 대기자)·강정숙씨

장남 현웅군 김창용·장정근씨 장녀 은영양=광주파라스타-22일(금) 오후 6시 30분 라마다호텔 5층 대연회장. 결혼식-30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홀.  
▲이경섭(목사)·김희녀씨 장남 인석(전 남대 치과병원 전공의)군 이진서(전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장·(주)구산건설 대

표)·황선희씨 장녀 은민양=30일(토) 낮 12시 50분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그랜드볼룸.  
▲전병호(남도일보 부회장)·김금례씨 장남 정인(MBN 사회부 범도팀 기자)군 이길영·김옥자씨 장녀 주연(KG이노시스 회계팀 대리)양=광주파라스타-29일(금) 오후 6시 30분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결혼식-6월 13일(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프라자 1층 그랜드볼룸.

###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북구분원(분원장 이근중) 정기총회=23일(토) 오전 11시 광주전남 도지원 회의실 010-4626-1165.  
▲제주 양씨 한라군후 유격대총회(회장 양희정)총회식 차기 대제=23일(토) 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양과동 283-2.

### 부음

▲김숙정씨 별세 이대춘·철현·상우·승미씨 모친상=발인 22일(금)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 ·김병기 국제이사 장남 결혼 안내·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장

김병기 정순남 여사 장남 경희(번호사)

오영춘 이경숙 여사 장녀 수연(치과의사)

일시 5월 31일 12시(일)

장소 광주마리아주웨딩스퀘어 3층 베라체 홀(구.상록웨딩홀)

문의 062)350-5000

알리는 이 : 국제라이온스협회355-B1지구 前총재 구 제 길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2일(음 4월 5일 戊戌)

子	48년생 금권에 휘둘러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다. 60년생 편승하는 방법 또한 관망했다. 72년생 외란에 치중하다보면 내실이 취약해진다. 84년생 앞장서서 보여준다면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05	午	42년생 점진적인 발전 속에 일시적인 정체도 있다. 54년생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다 되겠다. 66년생 주저는 살기로 이어질 것임에 변하다. 78년생 지나치다면 상대에게 부담감을 주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1, 35
丑	49년생 별 것은 없으니 크게 부담스러워 할 필요 없다. 61년생 남은 종지만 정작 주인공은 실속이 없을 수다. 73년생 관심 있게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85년생 생각지도 않은 말을 듣게 되어 당황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2, 54	未	43년생 실질적인 관계를 성립 시키는 단계에 이른다. 55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이익이다. 67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 될 것이다. 79년생 길운으로 행하고는 있으나 그릇이 너무 작다. 행운의 숫자 : 28, 79
寅	38년생 보장 된 것이 아니니 건강의 끈을 놓지 마라. 50년생 막혔던 것이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62년생 많고 적고 간에 지금은 다 모아야 할 때다. 74년생 모순이나 미비점이 보이거든 무시하지 마라. 86년생 유지하자. 행운의 숫자 : 38, 86	申	44년생 움직임 보다는 머무름이 더 유익하고 생산적이다. 56년생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68년생 남이 들을지도 모르니 조용히 얘기 해야겠다. 80년생 패념치 말고 현태에 최선을 다하라. 행운의 숫자 : 67, 62
卯	39년생 신중 해야겠다. 51년생 뜻밖의 일로 긴장하리라. 63년생 보자마자 추축할 수 있느니라. 75년생 먼저 다가선다면 충분히 개선 될 수 있는 관계다. 87년생 다 듣고 나면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39	酉	45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57년생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69년생 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하나 이득은 미지수다. 81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여러 날이 평안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70
辰	40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대목이다. 52년생 필연적 일 수밖에 없는 현대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64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6년생 일단 현재의 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19, 83	戌	46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58년생 뜻밖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따르리라. 70년생 긴히 쓰여져 놓인 실명을 듣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82년생 듣는 이가 많아서 유리한 국면을 점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5, 04
巳	41년생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돌아서자마자 후회하게 될 것이다. 53년생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65년생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것의 가닥이 잡히는 시기이다. 77년생 유리한 상황이 조성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8, 27	亥	47년생 아침의 근심이 저녁이 되면서 진정 국면을 맞는다. 59년생 처음처럼 대해야만 모면할 수 있느니라. 71년생 깊이 있게 다룬다면 얻는 바가 풍성할 것이다. 83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줄기차게 계속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1, 4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선영” ☎010-9790-8237